가정예배 세우기 프로젝트

HAPPY FAMILY

가정이 교회가 된다

WEEK 08

사 무 엘 상



Jacob's Ladder

WEEK 08

구원받은 요나단 삼상 14:43-46

찬양 시간

1 실로암

2 주 은혜임을

*** 큐알 코드를 인식하여 스마트폰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2

말씀 시간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44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46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한때 가짜 명품이 이슈가 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이, 알고 봤더니 가짜인 것으로 밝혀져서 낭패를 본 피해자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 종교적 열심의 모습이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참된 믿음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 초반부에서 요나단은 부하 1명만을 데리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하는 블레셋 군대를 거의 초토화 시키고 돌아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능력이나 용맹함을 믿고 나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싸웠기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적진이 심상치 않자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게 하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모습만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호의 기회 앞에서 블레셋을 공격할지 묻는 사울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은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뽑히고 맙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금식 명령을 어기고 숲속에 들어갔다가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실토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요나단은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오늘의 큰 구원을 이루어냈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요나단은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이 아닌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 각자가 속한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시간

Q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중에서 참된 믿음이 아닌 종교적 열정에 불과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Q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요나단과 같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기도 시간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